

그리스도인 17.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Christian 17. A Christian is a person whose sins have been forgiven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다.

대속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죄들을 용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이란,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린양, 그리스도께서 죽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어떤 죄인이든 예수님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것을 말한다.

1.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용서받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 첫째,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지워주신다.

내가 네 범법들을 백백한 구름같이, 그리고 너희 죄들을 구름같이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라.(사 44:22)

여기 죄들을 지워버렸다는 말은 더 이상 죄들을 보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죄도 심판도 하지 않으신다는 말이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의 죄들을 지워주신다.

- 둘째,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하여 그들이 더 이상 각각 자기 이웃이나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 중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 모두가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내가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렘 31:34)

여기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죄인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의 죄를 들추거나 그것을 가지고 그 믿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 셋째, 하나님께서 그의 죄들을 멀리 옮기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리 옮기셨도다.(시 103:12)

이스라엘의 속죄일에 죄를 짊어진 염소를 광야로 끌고 나가 풀어주었다. 그 염소가 떠나가면 어디선가 죽게 될 것이고 다시는 그 염소를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찾을 수 없게끔 멀리 옮기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죄 문제와는 상관이 없게 만드신다.

- 넷째,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 때문에 또 다른 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헌물이 필요 없느니라.(히 10:18)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드린 단 한 번의 희생으로 그의 모든 죄값이 지불되었기에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추가적 수고나 또는 다른 헌물들을 준비해 드릴 필요가 없다. 이미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통해 다 용서받은 것이기에 죄들을 용서받기 위한 목적으로 헌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2.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루어진 죄들의 용서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 첫째, 완전한 용서

이는 그분께서 성별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히 10:14)

예컨대 90%만 용서해주시고 10%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식의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이다. 빛을 할부로 갚아가듯 조금씩 용서해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이다.

- 둘째, 영원한 용서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히 9:12)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구속은 영원한 용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를 위해 죄 값이 지불되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은 영원히 그리 된 것이다.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것이다. 취소되지 않는 용서다.

- 셋째, 모든 죄에 대한 용서

그러나 만일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가 빛 안에서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느니라.(요일 1:7)

여기서 **모든 죄(all sin.)**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얻게 되는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다.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드러난 죄, 드러나지 않은 죄, 이미 지적받은 죄, 지적받지 않은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말한다.

또 너희의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시며,(골 2:13)

여기서 **모든 범법(all trespasses:)**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리는 용서는 모든 죄에 대한 용서, 모든 불법에 대한 용서이다.

- 넷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리는 용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의 부요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엡 1:7)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골 1:14)

그리고 신실하신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계 1:5)

이는 너희가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¹⁹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벧전 1:18-1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따라 볼 때,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데(히 9:22) 예수님은 자신이 흘리실 피에 대해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위해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마 26:28)라고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들이 예수님의 피를 찬송한다.

※ 사용된 성경 텍스트는 KJV 영어성경에서 번역한 근본역이다.